

다니엘의 책 - 번호 198

신성한 모임과 예언적 조화: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종말론적 틀에서 본 14만 4천의 역할

Jeff Pippenger
2024-05-01

우리는 교황권의 선, 배도한 공화주의의 선, 배도한 개신교의 선, 그리고 14만 4천의 선을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 배치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두 번 모으신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으며, 그분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는 모든 표상은 14만 4천의 최종 인침 과정을 나타낸다.

개혁의 선상에서 신적 표징이 임할 때, 주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모으시며, 그들은 이후 시험을 받는다. 시험 과정이 끝나면 흠어짐이 있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 택한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시는데, 많은 이들은 그 시험 과정에서 실패하여 뒤에 남겨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침례 때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흠어졌다. 부활 후에 그분은 오순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두 번째로 모으셨다. 이 선은 오순절로 예표되는 일요일 법령 직전에 14만 4천에게 두 번째 모으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십자가는 실망을 가리키며, 그 뒤에 두 번째 모으심이 따른다.

십자가 이후 두 번째 모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아버지와 만나 뵈신 뒤 내려오셨을 때 시작되었다. 신성한 상징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메시지를 먹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그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떡을 들어 축복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를 알아보았고,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누가복음 24:30, 31.

십자가 이후 두 번째 모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신 그 행위는 오순절 날에 내릴 풍성한 비에 앞선 몇 방울과도 같았다." 예언의 영 3권, 243쪽.

1844년 4월 19일의 실망 이후 두 번째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1843년의 오류에서 손을 떼셨다.

"그들의 주님께서 왜 오지 않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신실하지만 실망한 이들은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인도되어 예언적 기간들을 탐구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 숫자들에서 거두어지자, 그 오류가 해명되었다. 그들은 예언적 기간들이 1844년까지 이어져 있음을 보았고, 예언적 기간이 1843년에 끝난다고 보이기 위해 그들이 제시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그것들이 1844년에 종결될 것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초기 문집, 237쪽.

그 실망의 때에 둘째 천사가 '손에 문서를 들고' 내려왔다.

"또 다른 강력한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라는 명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의 손에 한 문서를 쥐여 주셨고, 그가 땅에 내려오자 외쳤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초기 저술, 247.

둘째 천사의 도래로 시작된 시험의 과정은, 성령이 부어지고 그 기별이 해일처럼 퍼져 나갔던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마무리되었다. 그 시험 과정은 십자가 이후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기까지는 그에 앞서 50일의 기간이 있었고, 그 50일은 다시 40일의 기간과 이어 오순절에 끝맺는 10일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초대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구하며, 모든 이권을 버리고, 깊이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며,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된 다음에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성령의 놀라운 부어 주심이 있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날에 약 삼천 명이 그들에게 더하여졌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9년 3월 11일.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후 승천하셨다. 그 뒤의 10일은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시를 앞둔 준비의 기간이었다. 십자가 이후의 40일간의 가르침은 1844년 4월 19일부터 1844년 8월 12일 엑서터 야영 집회 시작까지의 기간에 상응한다. 오순절 이전의 10일은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로, 밀러파가 사무엘 스노가 전한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기별에 하나가 되었던 때를 가리킨다. 그 야영 집회에서 두 부류가 드러났으며, 집회가 끝날 때 오직 한 부류만이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시를 받았다. 그 40일로 대표되는 기간에 한 부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부류는 그 가르침을 거부했다. 한밤중의 외침이 왔을 때 한 부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부류는 그렇지 않았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신랑의 지체함은 주께서 오시리라 기대하던 때가 지나감과 그에 따른 실망, 그리고 겉보기의 지연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확실한 때에 피상적이고 미지근한 이들의 관심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고 노력은 느슨해졌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씻어 갈 수 없는 반석을 발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들이 다 졸며 잤다'; 한 부류는 무관심 속에서 믿음을 버렸고, 다른 부류는 더 분명한 빛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시련의 밤에 후자들도 어느 정도 열심과 헌신을 잃어버린 듯하였다. 미지근하고 피상적인 이들은 더 이상 형제들의 믿음에 기대어 설 수 없었다. 각 사람은 스스로 서거나 넘어져야 했다." 대쟁투, 395.

오순절을 앞둔 열흘 동안과 엑서터 캠프 집회 기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에 앞서 그들을 두 번째로 모으셨다.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내려왔을 때, 작은 무리는 다시 실망하고 흩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지성소로 이끄시면서 1844년 10월 22일에 가르침의 기간이 시작되었다. 1849년에 주께서는 1844년 4월 19일과 10월 22일의 실망 가운데서 모으셨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 그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셨다.

1844년에 지시는 내려올 때 셋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메시지에 관한 것이었지만, 큰 실망 이후 이어진 '의심과 불확실성의 시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었다.

1849년까지는 흩어진 작은 양 떼를 모으는 일이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가 보여 준 것은 1863년의 패배와 현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데스였다. 14만 4천의 장차 있을 승리와 그들이 두 번째 가데스에서 수행할 사역은 지연되었다.

주께서 2001년 9월 11일에 강림하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 때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적 양식을 먹게 하셨고, 늦은 비를 뿌리기 시작하시면서 그 백성 위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으며, 또한 2020년 7월 18일로 이어지는 시험의 과정을 시작하셨다. 그날 그분의 마지막 때의 백성은 실망하여 흩어졌다. 그들은 사흘 반 동안 거리에서 죽은 채로 있었다. 사흘 반과 그리스도 시대의 사십 일의 기간은 모두 광야를 상징한다. 그것은 또한 1844년 4월 19일부터 같은 해 8월 12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부터 1849년까지의 기간으로도 나타난다.

2023년 7월부터 오순절에 앞선 열흘인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엑서터에서 열린 야영회, 그리고 1849년부터 1863년까지의 기간은 모두 서로 일치한다. 그것들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모임의 기간을 나타낸다. 실망에서 성령의 부어 주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두 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시기로 나뉜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는 배도한 개신교(명목상의 교회)의 노선,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명목상의 재림교)의 노선, 가톨릭의 노선, 그리고 참된 개신교의 노선이 모두 나타나 있다. 이 네 가지 노선은 용(유다), 짐승(가톨릭), 거짓 선지자(배도한 개신교)로 이루어진 삼중 연합과 논쟁하는 참된 개신교를 보여 준다.

바로 그 동일한 숨겨진 역사 안에서 배도한 공화주의의 계보도 또한 그려져 있다. 그 계보 속에는 민주당(용)과 공화당(짐승의 형상) 사이의 논쟁이 묘사되어 있다. 공화당은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교황권)의 예언적 특징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북방 왕이자 또한 짐승인 교황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데 대한 대가로 이집트(용)를 받는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려고 그의 군대를 큰 수고에 종사하게 하였나니, 머리털이 다 벗겨지고 어깨마다 살이 벗겨졌으나, 그가 그것을 대적하여 수고한 일에 대하여 두로에서, 그도 그의 군대도, 샅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애굽 땅을 주리니, 그가 그 무리를 취하고, 노략하며, 탈취하리니, 그것이 그의 군대의 샅이 되리라. 그가 그것을 대적하여 수고한 대가로 내가 그에게 애굽 땅을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뿔이 움돋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네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9:18-21.

본문에서 북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의 품삯으로 애굽 땅을 받는데, 이는 마지막 때에 교황권이 애굽을 받게 됨을 예표한다. 이 애굽은 곧 용이며 곧 열 왕, 곧 국제연합을 가리키며, 그들은 잠시 동안 그들의 일곱째 왕국을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한다.

네가 그 짐승 위에서 본 열 뿔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넣으셔서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16, 17.
이 예언적인 지불은 다니엘서 11장 42절에도 나타나 있다.

그는 또한 여러 나라들에 손을 펴리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다니엘서 11:42.
교황권은 늦은 비 때에 용의 권세를 제압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뿔이
돌아나게 하시는" 그 "날" "안에서" 이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비이며, 그 날은 동풍의 날이었던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그가 야곱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꽃피고 싹이 트며, 온
세상의 지면을 열매로 가득 채우리라. 그를 친 자들을 치신 것같이 그가 그를
치셨느냐? 또는 그가 그가 죽인 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였느냐? 분량을 두시고, 그것이
뿔어 나올 때에 그것과 다투시리라.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멈추시리라.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정결케 될 것이며,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산산이 부서진 백악돌처럼 만들 때에,
수풀들과 형상들은 다시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27:6-9.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애굽이 교황권의 짐승에게 넘겨진다. 셋째 화의 이슬람을 상징하는
동풍이 2001년 9월 11일에 "멈추어지고", 곧 억제되었을 때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들이 싹트기 시작함에 따라 비가 이스라엘 위에 분량대로(뿌려지듯)
내리기 시작했다. 셋째 화가 다시 올 때인 일요일 법령 때에 늦은 비는 한량없이 부어지게
된다. 2001년 9월 11일과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사이에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며, 히브리어로 "정결케 되다"는 "속죄되다"를 뜻한다. 일요일 법령 때에 그 열 왕들이
짐승의 전 세계적 우상을 형성함으로써 교황권과 음행할 때, 교황권의 짐승에게
애굽(용)이 주어진다.

일요일 법령 이전, 십사만 사천 명이 인침을 받는 때에, 배교한 공화당의 뿔이 배교한
개신교의 뿔과 함께 짐승의 우상을 만들며, 그 예언적 선상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긴다. 이는 민주당이 용의 권세이고 공화당이 교황권의 형상을 만드는 권세이기
때문이다.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 안에서 민주당의 종말과 공화당의 종말이 드러난다. 그 두
정당은 공화주의의 뿔을 이루지만, 땅의 짐승의 전 역사에 걸쳐 관통하는 내부적 투쟁을
드러낸다. 그 뿔(공화주의)은 땅의 짐승의 두 뿔의 내부적 축소판을 담고 있다.

메대와 바사 왕국의 증언에서는 마지막 뿔이 더 높이 올라왔고, 미국 역사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지만 끝에는 공화당이 더 높이 올라 민주당을 이긴다.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늦은 비의 역사에서, 글로벌리스트이자 용에게서 영감을 받은 민주당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무저갱에서 올라와 2020년 선거를 훔쳐 공화당을 죽였다. 그들의
트럼프(및 공화당)에 대한 전쟁은 그가 2015년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더욱 격화되기만 했다.

민주당이 2020년에 선거를 훔치자 그들은 이어서 펠로시 재판을 시작했지만, 2022년에
트럼프가 세 번째 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들의 분노는 더욱

격화되었으며,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큰 분노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맞섰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축하했지만, 그가 일어서자 큰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 속한 자들이 삼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보고,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요한계시록 11:7-11.

민주당의 종말을 가리키는 기간은 2021년 바이든 취임부터 2025년 트럼프 취임까지이다. 그 기간은 순전히 위헌적이고 전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의 '펠로시 재판'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끝의 때' 이래 여섯째 대통령의 죽음부터 일곱째 속한 여덟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를 나타내는 그 역사는 정치적 재판('펠로시 재판')으로 시작했고, 정치적 표적이 뒤바뀐에 따라 민주당의 종말과 두 번째 '펠로시 재판'으로 끝난다.

그 역사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으며, 그 최초의 성취는 프랑스 혁명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 혁명은 한 집권 세력이 다른 집권 세력을 처형하고, 이어서 바로 그 집권 세력 자신이 전복되어 박해를 받게 되는 단두대식 정치 전쟁의 고전적 역사적 사례이다.

바이든의 취임과 펠로시 재판으로부터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과 펠로시 재판의 반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민주당의 종말을 가리키며, 또한 트럼프가 Alien and Sedition Acts를 전형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하는 때를 가리킨다. 그러한 행정명령들의 시행은 두 번째 펠로시 재판을 시작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의 개시를 가리킨다. 그 시기는 일요일법의 시행에서 끝나므로, 그 기간은 Alien and Sedition Acts와 유사한 행정명령들로 시작해서 일요일법으로 끝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공화당이 끝난다.

민주당의 종결을 나타내는 시기와 이어 공화당의 종결을 나타내는 시기는 예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22년이라는 기간으로 표상된다. 그 기간에는 세 가지 이정표가 있다. 1776년의 독립선언, 13년 뒤의 헌법, 그리고 이어지는 1798년의 외국인법과 선동법이다. 그 세 가지 이정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사적 전개에서도 성취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정표의 적용 시점은 각 정당의 경우 서로 다르다.

이러한 이정표와 그 성취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두 편뿐이다. 사탄은 그의 비뚤어진, 기만적인 권세로 역사하며, 강한 미혹으로 진리에 거하지 않는 모든 이, 곧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선 자들을 사로잡는다. 사탄 자신도 진리에 거하지 않았으니, 그는 불법의 비밀 그 자체다. 그는 간교함으로 영혼을 멸하는 그의 오류에 진리의 겉모습을 입힌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미혹하는 힘이 있다. 그것들이 진리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심령술,

신지학과 그와 같은 속임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사로잡는 힘을 얻는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노련한 역사가 있다. 그는 자신을 사람의 구주, 인류의 은인으로 가장하여, 이리하여 더욱 손쉽게 그의 희생자들을 멸망으로 유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은 한시도 방심하지 않는 경계의 대가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오직 진리와 의의 바른 길에서만 우리는 유혹자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덧에 걸려 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계획과 방법을 꾸미는 데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에게는 기만이 정교한 예술이 되었고,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일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겉으로는 진정한 선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거짓되고 파괴적인 원리들로 세상을 오염시키려는 그의 계략을 분별하신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계에 일종의 노예 상태를 들여오려 한다. 조직과 기관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탄의 지시 아래 움직여 사람들을 사람의 지배 아래 두게 될 것이며, 속임수와 간계는 진리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열정의 외양을 띠게 될 것이다. 우리의 행실 가운데 대낮처럼 환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악의 통치자의 방법에 속한다. 그의 방법들은 더 진보된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경고에 사람들이 저항하면, 그들은 악행의 지도자들로까지 변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하려 든다—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면서, 하나님 자신도 하지 않으시는 일을 감히 하려 든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과 계획을 들여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누룩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기관들과 교회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거짓 원칙들을 들여온다. 의와 공평, 그리고 공정한 판단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낮추는 그 어떤 것이라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의 마음의 지배 아래 두려는 어떤 책략이나 규범이라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다. 그것은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는다. 이는 그것이 철저한 정직과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동료 인간을 지배하거나 압제하도록 하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지 않으신다.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적용할 철같이 엄격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명에를 씌워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즉시,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자기 영혼과 형제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 죄인 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과 의를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의롭다. 들의 꽃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며, 공기와 이슬과 소나기와 햇빛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받을 때에만 번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영혼의 생명에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을 자기 팔로 삼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선포된다. 1888년 자료, 1432-1434.